

서울 강동지역 소재 한방병원 피부과 내원환자의 질환 빈도에 따른 임상적 관찰

손병국 · 최인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A Clinical Study of According to Prevalence of Dermatoses in a Oriental Medicine Hospital of Gang-Dong Area in Seoul

Byeong-Kook Son · In-Hwa Choi

Objective and Methods : To study the prevalence and patterns of common dermatoses and compare these to previous reports, we reviewed 128 new outpatients who visited Allergy/Derma-cosmetic Clinic at Kyung Hee Neo Medical Center in Gang-Dong area of Seoul from January to June, 2007.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Among the 128 outpatients, the total number of male patients were 40(31.2%) and female patients were 88(68.8%).
2. In the age distribution, the most frequently visited age groups were 10-19 years old and 20-29 years old(each 21.1%).
3. The most common dermatoses were atopic dermatitis(27.3%), acne(14.1%), allergic contact dermatitis(11.7%), other eczemas(7.8%) and seborrheic dermatitis(7.0%).
4. Among atopic dermatitis patients, the most populated age groups were 0-9 years old and 10-19 years old(each 37.1%), these results are different from past studies revealing that 0-9 years old patients are dominant.
5. Among acne patients, the most frequent age groups were 20-29 years old(50%) and 30-39 years old(27.8%), these results are different from past studies revealing that 20-29 years old and 10-19 years old patients are dominant.
6. Among Allergic contact dermatitis patients, each age group showed no difference of population. And Allergic contact dermatitis patients visited outpatients department at early stage.

Conclusion : This study shows that Oriental medicine is popular especially in atopic dermatitis, acne and allergic contact dermatitis. We should investigate long-period and multi-centered study in order to know prevalence tendency of dermatoses in Oriental Medicine. And it is necessary to research using more efficient evaluation method and treatment for these special diseases.

Key word : prevalence, dermatosis, Oriental Medicine

서 론

피부질환의 발생과 분포는 각 지역별로 연구대상이 되는 인구와 문화, 환경적 요인 등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 받는 피부질환의 발생과 분포양상을 규명하는데 전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¹⁾.

병원 단위의 환자 통계는 지역 인구집단의 유병상태나 한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나 선호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방향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²⁾. 과거 2000년²⁾, 2005년³⁾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임상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지만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각각에 대한 질환별 분류와 치료기간에 대한 통계가 전부였으며 이 외에는 노장층 피부질환 환자에 관한 보고⁴⁾가 있었다.

이에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한방피부과 외래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연령별, 성별, 질환별 분포의 특징 및 본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받은 치료방법들, 발병일부터 내원일까지의 소요기간 등의 전반적인 특징 및 다빈도 질환에 대한 각각의 역학적 특징을 분석, 고찰하여 앞으로의 한방 피부과 연구방향 모색에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관찰대상 및 방법

1. 기간 및 대상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6개

월간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에 피부질환으로 내원한 신환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항목

외래초진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성별, 초진 당시의 연령, 발병일, 초진당시의 진단명, 양방치료의 경험유무 및 초진당시까지 양방치료의 치료 지속 여부, 해당 질환으로 인한 한방치료의 경험 여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가 역학적인 특징과 발병 이후 본원에 내원하기까지의 치료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호전 후 재발한 환자의 발병일은 처음 발병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진단명은 가장 중요한 진단명 한 가지를 선택하였다.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증상의 양상에 따라 기타 습진 또는 기타 질환으로 포함시켰다.

결 과

1. 전체 환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6개월간 내원한 신환은 128명이었으며 그 중 여자가 88명(68.8%)으로 40명(31.2%) 내원한 남자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1:2.2)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0-19세 및 20-29세의 환자군이 각각 27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군, 0-9세군, 40-49세군의 환자가 많이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성별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50세 미만의 환자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1:2.55)을 보였으나 50세 이후에서는 여자와 남자환자 비율이 1:1이었다.

교신저자: 최인화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안이비인후피부과학교실

(Tel, 02-440-6235, Fax, 02-440-7143,

E-mail, inhwajun@hanmail.net)

• 접수 2007/11/04 • 수정 2007/11/22 • 채택 2007/12/06

Table 1. Distribution of Sex and Age

Distribution	Male	Female	Total(%)
0-9 years	4	15	19 (14,8)
10-19	9	18	27 (21,1)
20-29	5	22	27 (21,1)
30-39	8	13	21 (16,4)
40-49	5	11	16 (12,5)
50-59	4	6	10 (7,8)
60-69	3	2	5 (3,9)
over 70	2	1	3 (2,4)
Total	40	88	128 (100,0)

2. 질환별 분포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35명(27.3%)으로 가장 많이 내원하였으며 그 외 여드름(14.1%),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11.7%), 기타 습진(7.8%), 지루 피부염(7.0%), 탈모(4.7%) 등의 질환에서 많은 환자가 내원한 것을 볼 수 있다.

Table 2. Distribution of Dermatoses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Atopic dermatitis	11	24	35 (27,3)
Acne	2	16	18 (14,1)
Allergic contact dermatitis	6	9	15 (11,7)
Eczema, Unspecified	5	5	10 (7,8)
Seborrheic dermatitis	3	6	9 (7,0)
Alopecia	3	3	6 (4,7)
Psoriasis	2	4	6 (4,7)
Urticaria	2	3	5 (3,9)
Folliculitis	4	0	4 (3,1)
Angular chelitis	0	3	3 (2,4)
Others	2	15	17 (13,3)
Total	40	88	128 (100,0)

3. 주요 질환별 분포

1) 질환별 성별 분포

아토피 피부염(1:2,2), 지루성 피부염(1:2)은 전체 내원환자(1:2,2)와 비슷한 남녀비율을 나타내었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남자가 다소 많은 비율(1:1,5)을 보였으며 여드름 환자는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1:8).

2) 질환별 연령 분포

아토피 피부염 환자 중에서는 0-9세, 10-19세에 내원한 환자가 각각 13명(37.1%)으로 가장 많았다. 여드름으로 내원한 환자에서는 20-29세의 환자군이 9명(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39세의 환자군이 5명(27.8%)으로 나타났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는 70세 미만 전 연령대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지루 피부염 환자는 10-19세 환자가 많았다.

3) 발병일부부터 초진일까지의 소요기간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각 질환이 처음 발생하였을 때부터 본원 외래에 내원하기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다. 질환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내원한 경우는 14명(10.9%)이었으며, 1년 이상 경과하여 내원한 환자가 75명(58.6%)이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발병 후 1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가 1명(2.9%)이었으며 1년 이상 경과하여 내원한 환자가 24명(68.6%)으로 나타났다. 여드름의 경우에도 발병 1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1명(5.6%)으로 적었으며 1년 이상 경과하여 내원한 환자가 10명(55.6%)을 차지하였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는 5명(33.3%)의 환자가 발병 1개월 이내에 내원하였고 1년 이상 경과하여 내원한 환자는 7명(46.7%)으로 다른 질환보다 발병하여 한방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 지루 피부염 환자는 1개월 이내에

Table 3. Age Distribution of Common Dermatoses

Distribution	Atopic Dermatitis	Acne	Allergic contact dermatitis	Seborrheic dermatitis
0-9 years	13 (37.1)	0 (0.0)	1 (6.8)	0 (0.0)
10-19	13 (37.1)	3 (16.7)	2 (13.3)	4 (44.5)
20-29	7 (20.0)	9 (50.0)	2 (13.3)	0 (0.0)
30-39	1 (2.9)	5 (27.8)	3 (20.0)	2 (22.2)
40-49	1 (2.9)	0 (0.0)	2 (13.3)	2 (22.2)
50-59	0 (0.0)	1 (5.5)	2 (13.3)	1 (11.1)
60-69	0 (0.0)	0 (0.0)	3 (20.0)	0 (0.0)
over 70	0 (0.0)	0 (0.0)	0 (0.0)	0 (0.0)
Total	35 (100.0)	18 (100.0)	15 (100.0)	9 (100.0)

Table 4. Period from Onset to Visit in Common Diseases

Period	Atopic dermatitis	Acne	Allergic contact dermatitis	Seborrheic dermatitis	Others	Total
0-1 month	1 (2.9)	1 (5.6)	5 (33.3)	0 (0.0)	7 (13.7)	14 (10.9)
1-12 months	10 (28.5)	7 (38.9)	3 (20.0)	3 (33.3)	16 (31.4)	39 (30.5)
1-10 years	19 (54.3)	8 (44.4)	4 (26.7)	6 (66.7)	22 (43.1)	59 (46.1)
over 10 years	5 (14.3)	2 (11.1)	3 (20.0)	0 (0.0)	6 (11.8)	16 (12.5)
Total	35 (100.0)	18 (100.0)	15 (100.0)	9 (100.0)	51 (100.0)	128 (100.0)

Table 5. Distribution of Past Treatment – Western-Therapy

Classification	None	Western-therapy		Total
		Did	Now	
Atopic dermatitis	9	5	21	35
Acne	4	6	8	18
Allergic contact dermatitis	6	2	7	15
Seborrheic dermatitis	2	2	5	9
Others	16	17	18	51
Total	37(28.9)	32(25.0)	59(46.1)	128(100.0)

Table 6. Distribution of Past Treatment – Oriental Medical Therapy

Classification	None	Did	Total
Atopic dermatitis	25	10	35
Acne	17	1	18
Allergic contact dermatitis	13	2	15
Seborrheic dermatitis	6	3	9
Others	45	6	51
Total	106(82.9)	22(17.1)	128(100.0)

내원한 환자는 없었고 1년 이상 경과하여 내원한 환자가 6명(66.7%)이었다.

4) 내원 이전의 치료방법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본원에 내원하기 전에 양방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와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원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환자 중 37명(28.9%)은 양방치료를 받지 않고 바로 한방치료를 위해 내원하였고, 32명(25%)은 양방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중단하고 내원하였고, 59명(46.1%)은 양방치료를 계속 받던 도중에 내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환에 따른 양방치료의 경험여부를 살펴보면 대개의 질환에서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지만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양방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한방치료로의 전환 또는 병행을 위해 내원한 경우가 60%에 이르렀다.

5) 한방치료의 경험여부

본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한방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환자 중 17.1%는 이미 다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에서 한약 또는 침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28.6%, 여드름 환자의 5.6%,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의 13.3%, 지루 피부염 환자의 33.3%가 다른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피부 질환으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남녀의 비율은 1:2.2로 양방에서 김 등¹⁾이 보고했던 1:1.07과 많은 차이를 보이며, 한방에서도 정³⁾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1:1.09는 물론이고 김²⁾의 연구에서 나타난 1:1.69보다도 여자의 비율이 매우 많이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여드름의 경우에는 남녀비가 1:8에 달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자연요법의 선호도 증가에 따라 한방치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분포에서 10-19세 및 20-29세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0-39세 및 0-9세 환자의 비율이 그 다음을 차지한 결과를 보였는데, 김²⁾, 정 등³⁾의 연구에서 20대 및 30대의 환자비율이 높았으며 10대 환자의 비율은 10% 내외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볼 때 10대 환자의 내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환별 분포에 있어서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습진, 지루 피부염 등의 순서로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다. 이는 과거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2,3)}와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과거 양방에서 김 등¹⁾이 백선증, 접촉 피부염, 두드러기, 여드름, 기타 습진, 아토피 피부염 등의 순서로 환자가 많았다고 보고한 결과나, 김⁶⁾이 백선증,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자극성 접촉 피부염, 여드름 등의 순서로 많이 내원했다고 보고한 연구, 그리고 2007년 1/4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2007년도 1/4분기 건강보험통계지표⁷⁾”를 통해 발표한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요양급여실적 실인원 자료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백선증,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의 순서로 많은 환자가 요양급여 청구된 것을 함께 비교할 때 질환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은 상대적으로 한방 내원 비율이 높고 백선증 환자는 한방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방에서 김 등¹⁾이나 장 등⁸⁾의 보고에서는 빈도가 가장 높은 10개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의 비율이 각각 42.7%와 47.3%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13.3%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본원에 내원한 환자 중 양방치료의 경험이 있었던 환자가 71.1%에 달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할 때 피부질환 중에서 한방치료를 선호하는 질환의 종류는 비교적 한정되어 있으며, 많은 피부질환 환자들이 양방피부과를 우선적으로 방문하고 호전이 잘 되지 않는 질환의 환자들이 한방치료를 위해 내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Table 7. 2007년 1/4분기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 별 요양급여실적 실인원⁷⁾

순위	질병분류기호	실인원
18	L23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900585
25	B35 백선증	555846
39	L50 두드러기	458986
49	L20 아토피 피부염	346764
58	L21 지루 피부염	293784
69	L30 기타 피부염	273525
73	L24 자극성 접촉피부염	265691
83	L02 피부성 고름집(농양), 종기 및 큰 종기	202510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0-9세 환자가 37.1%로 김 등¹⁾의 보고에서 10세 미만이 전체의 82.6%를 차지한다고 하고 박 등⁶⁾의 연구에서 12세 이하 환자가 전체의 51%라고 한 것과 비교했을 때 비율이 낮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발병일과 내원일 사이의 기간을 보면 전체의 68.6%의 환자가 발병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내원하였으며 그 중 54.2%의 환자는 발병 후 5년 이상 경과하여 내원하였다. 또한 전체의 74.3%의 환자가 이미 양방치료를 받던 도중이거나 받다가 중단하고 내원하였으며, 상당수의 환자는 한방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증상이 발하고 바로 한방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양방치료를 비롯하여 여러 치료를 받다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등 오랜

경과를 거쳐 만성화되어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0-9세 환자의 비율이 낮으며 10-19세 환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여드름 환자 중 20-29세 환자의 비율은 전체의 50%, 30-39세 환자의 비율이 27.8%, 10-19세 환자의 비율이 16.7%로 김 등¹⁾이 20대, 10대, 30대의 순으로 환자가 분포한다는 보고와 비교했을 때 30대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10대 환자의 비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방치료의 경험이 있는 환자가 77.8%이며 질환이 발생하고 내원하기까지 평균 3년 8개월이 소요된 것을 함께 볼 때 여드름 환자의 경우에도 발병 후 많은 환자들이 오랜 시간 경과하거나 양방치료를 먼저 받는 등의 경과를 거친 후 호전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 내원한 것으로 생각된다.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환자의 경우에는 전체 환자가 10~69세에서 특정한 연령대에 집중되지 않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발병 후 1년 이내에 내원한 환자가 53.3%이며 33.3%는 발병 후 1개월 이내에 내원하는 등 비교적 발병 후 빠른 시기에 내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양방치료를 받지 않고 내원한 환자가 전체의 40%에 해당하여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원 한방피부과의 외래 명칭을 “알레르기/피부미용 클리닉” 이라 명명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루 피부염의 경우에는 10-49세 환자들이 내원하였으며 연령별 분포 경향이 불규칙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환자 수가 적은 영향도 있으며 지루 피부염의 특성상 여드름이나 탈모 등의 여러 질환이 합병되면서 한 가지 진단명으로 지루 피부염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양방치료를 받은 경험의 여부는 직접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경우와 내원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환

자의 60%가 양방치료를 받는 도중에 호전과 악화의 반복 또는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로 한방치료로의 전환 또는 병행을 위해 내원하였으며 여드름 환자의 경우에는 77.8%의 환자가 양방치료 후 건조감이나 열감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양방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내원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방치료의 중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한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내원한 경우도 30% 가까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질환은 치료 후 재발이 잦거나 치료효과가 다른 질환에 비해 낮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만성적으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에 관한 연구를 계속해야 함은 물론이고 치료의 유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치료 기간 등에 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 표준화된 치료를 통해 한방 치료의 영역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개원 이후 많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1년 단위의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여 월별/계절별 경향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질환의 계절적인 특징에 따른 연구결과와의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개 병원단위의 연구로 지역적인 경향을 배제할 수 없어 전체적인 한방 의료기관의 내원경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다기관의 동일 기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기간과 치료방법, 치료율,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한방 피부과 영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개선 방향을 모색

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알레르기/피부미용클리닉에 내원한 신환 128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분포 및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질환별 특징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내원환자 중에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2.2배 많았다.
2. 연령별 분포는 10-19세 및 20-29세의 환자가 가장 많았다.
3. 질환별로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지루 피부염 등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4.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0-9세 및 10-19세가 각각 37.1%를 차지하였고, 여드름의 경우에도 20대와 30대가 많았다.
5.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비교적 연령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발병이후 짧은 기간 이내에 내원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1. 김진복, 김재홍. 피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1981-1990). 대한피부과학회지. 1996;34(3): 366-74.
2. 김윤범. 외관과 외래환자의 통계적 관찰. 대한외관과학회지. 1992;13(1):280-90.
3. 정순영, 서형식. 안이비인후피부과 외래환자의 임상적 분석.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2005; 18(2):51-61.
4. 최인화. 한방병원에 내원한 노장층 피부과 환자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안이비인후피부과

- 학회지. 2002;15(2):289-301.
5. 박영민, 박홍진, 김태윤, 김정원. 피부과 외래 환자에서 아토피피부염의 상대빈도와 임상적 특징 및 검사 소견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1997;35(1):96-106.
 6. 김동건. 외래에서 흔한 피부질환. 가정의학회지 1996;17(11):1014-1021.
 7. 2007년도 1/4분기 건강보험 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URL: http://www.hira.or.kr/ICSFiles/afieldfile/2007/05/28/data_200714.xls
 8. 장성남, 이종서, 이승현, 박윤기. 서울 강남지역 피부질환의 통계적 관찰. 대한피부과학회지. 1994;32(5):872-85.